



2024 교회 표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요 10:11)

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 인도 홍아브라함 목사
*기 원	목 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영화로신 주 (찬35) • 신실한 나의 하나님
기 도	Joey Wang 집사
성경봉독	잠언 31장 10-31절
특별찬양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찬양대-
설 교	“현숙한 아내” -홍아브라함 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양	교회의 참된 터는 (찬600)
*봉헌기도/축도	홍아브라함 목사

*표는 일어서서
 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Zelle 온라인헌금: highland.giving@gmail.com)

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 금요 찬양 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 QT 방송: 화요일, 목요일

P C A 하이랜드교회
 한인중부노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 (담임 목사) hellofromhighland.com (EM Web)

◀총회 다녀왔습니다!▶

PCA 총회가 Richmond, VA에서 있었습니다.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믿는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엘리야의 한탄처럼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회에 참석하면 위로가 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될 때에, 같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겠다고 힘쓰는 수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목사, 장로, 그리고 가족들이 매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성찬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함이 없으시구나!’ 다시 한번 느끼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PCA 교단은 올해로 설립 51년을 맞는 젊고 작은 교단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남침례교가 우리보다 30배 더 크다고 하니, 우리는 매우 작은 교단입니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입니다. 지난 20년간 다른 교단들이 약 30% 정도 감소한 것에 반해, 우리 교단은 101% 성장했습니다. PCA는 88개 노회에 2천여 교회가 가입되어 있고, 목사가 5,300명에 400,000 정도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매년 성인 세례는 약 3천, 유아 세례는 약 5천명 정도가 받는다고 합니다. 사회는 자유주의화 되어도, 바른 신앙을 지키려는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십니다. 여러분이 그 중 한명입니다 -박목

◀ 광고 ▶

- 안수집사 임직예배: 6/30 주일 예배 시 (김승모, 황인성 집사) 영어권과 연합으로 드립니다
- 주일학교 졸업예배: 6/27 금 특별찬양예배 시 (Caleb Park, Eleena Yoon, Roy Kang, Isacc Wu)
- 4구역 예배: 6/23 주일 3:10pm (봉사: 이맹표 장로 가정)
- 친교: 이번주- 교회/ 다음주- 한문선 권사
- 협력기도: 권순조 권사, 이오덕 집사(다리 수술 후 회복)
- 출타: 조병래 집사 가정, 박현수 목사 가정
- 다음주 기도: 김태중 장로/ 금요일예배 기도: 나순호 권사
- 6월 뒷정리: 2구역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홍정모(Abraham)
 교육강도사 신준식(James, 유초등부)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Adam Kastler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케냐 - 강충만
 캄보디아 - 김석훈
 NOVO(NK) - 서예레미야
 니카라과 - 정연호
 REI - James Kang
 Global Hope - 조용중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내는 1% 켈런지 교회입니다!